약 3㎞를 부분 지중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순천시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의견수렴

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다.

순천, 경전선 '도심구간 지중화' 건의

이사천~인제건널목 약 3km 부분 최적안 제시 기존 노선·순천역 활용···소음·안전사고 예방

순천시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순천시 도심구간 일부를 지중화하는 대안 을 마련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경전선 전철 화 사업은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 량되지 않은 광주 송정역~순천 구간을 전 철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 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122.2km 구간에 1조7,7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마지막 노선을 남해안선 고속철도와 연계하면 기존 5시 간 이상 걸렸던 광주~부산 이동시간이 2 시간대로 단축돼 남해안권에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순천의 도심구간을 기존 노선 그대로 활용하는 안이 국토교통부를 통과 함에 따라, 하루 6회에서 40회로 운행 횟 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소음피해와 교통체 증 유발, 높이 7m에 이르는 전차선 구조 물 설치로 정원도시 순천의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로 인해 순천시장의 입장문 발표, 순 천시의회의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 시 민대책위원회의 집단농성 등지역의 반대 여론이 거셌다.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정식적인 대안 을 건의하기 위해 지난 5월 '한국교통대 학교 산학협력단'에 대안검토 연구용역

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천을 지나 지중으로 들어가 인제건널목까지 부분을 지중화하는 내용이다. 을 맡겨, 여러 가지 대안 중 경제성이 뛰 어나며 타당성이 있는 도심 구간 4km 중

순천시는 이 구간이 지중화되면 6개의 철도건널목이 사라져 사고위험과 교통체 증이 줄어들고, 철도부지 지상은 공원과 광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도시민에게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번 대안은 기존 노선 및 순천역을 활

용하되 도심권 단절, 소음피해 최소화, 안

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체 도심 구간 경 전선을 지중화하는 대안을 검토했지만, 순천역이 동천 바로 옆에 위치해 지리적 여건상 철도선로 기울기 기준을 충족하 기 위해서는 순천역을 옮겨야 한다는 문 제점이 있었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심 구간 중 가능한 최대 구간을 지중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고흥 해상가두리 양식장 점검

송귀근 고흥군수가 최근 금산면 우두·금진·신촌에 있는 해상가두리 전복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름에 빠진 어업인을 격려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치유·회복·사랑 '그래도' 전

여수미술관. 김현영 초대전 내달 6일까지

여수미술관이 오는 10월 6일까지 여수 미술관전시실과여수시립쌍봉도서관두 곳에서 동시에 김현영 초대전 '그래도' 전을 연다. '쉴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의 식은 휴식으로부터 출현한다' 어느 철학 자는 쉼을 '잠' 이라 특정하며 의식이 휴 식을 취하는 것이라 했다.

김현영 작가의 쉼은 '의자'로 출발했 다. 간절한 자에게 기꺼이 내어 준가난한 '의자'는이제 살랑대는 바람결에 느껴지 는 공기와 어느 날 무심코 들어온 온화한 햇살로 가만히 그렇게 품는다. 이 땅에 힘 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 매주고 치유해주고 있다.

이번 김현영 초대전에서는 '그래도'라 는 주제로 지구촌 곳곳에 끊이지 않는 수 많은 고통들을 보며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김현영 작가는 추계예술대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2019 라이프 이즈 기프트(여 니 갤러리), 2020 허그(갤러리 쿱), 그날 (갤러리 윌렛), 2021 하나, 둘, 셋, 다시 (갤러리쿱) 등 12회의 초대·개인전을 가 졌다.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과 2020 부산



김현영 작 '하나, 둘, 셋, 다시'

국제아트페어, 2021 코리아 아트페어 등 에 참여했다. 그 외 18회 대한민국미술대 전 입선, 18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대상, 39회 구상전 특선 등의 수상 경력 이 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EMG, 엑 소우시아 회원, 갤러리 쿱소속작가로활 동중이다. /우성진 기자

광양,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광양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관광환경 조 성을 위한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관광지에 방역 관리 요 원을 투입해 안전여행을 도모하고 관 광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사 업으로 100% 국비로 진행된다.

광양시는방역·관리 요원 선발을 마 무리하고 방역관리 요원 기본교육과

안전예방수칙, 관광지 규모 및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12월까지 4개 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관리 요원 은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안전 지 도, 관광지 주변 환경 정화, 광양관광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광양시는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유 관분야 경력자 등을 우선 채용할 계획 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월등면민 "삶의 터전 지키겠다"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송치 선정…"반대 결사 항쟁"

순천시쓰레기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 센터'의 최적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가 선 정됐지만, 월등면민들이 결사 항전의 뜻 을 밝혀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순천시 월등면민들은 클린업환경센터 최적지 선정을 주민들을 속인 밀실・탁상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의신청과 반대집회 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근 황전면민들도 뜻을 함께하 기로 했다.

지난 7일 순천시 쓰레기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구성된 '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

위)'는 제14차 회의를 열고 클린업환경 센터의 최적 후보지를 월등면 송치지역으 로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월등면민들은 '쓰레기 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 다. 우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별로 돌아 가면서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가기로 결의

레기처리장 입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복숭 아와 매실의 주산지로 체험 휴양마을, 행 복마을 등으로 지정된 웰빙 청정지역이라 는 이유였다.

또한 복수초, 변산바랑꽃을 포함한 희 귀야생화가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고 섬진 강의 지류인 계월천과 황전천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공기 순 환이 되지 않아 소각하고 연소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주민들에게 직 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도 주된 반 대 이유였다.

지금까지 면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은 월등면민들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쓰 진정서를 순천시에 제출하기도 하고 1 인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반대 운동을 전 개해 왔다. 그때마다 순천시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

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고 한다. 올해 초 월등면민과의 대화에서도 허석 순천 시장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시행 하지 않겠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고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반대 대책위 관 계자는 "순천시의 말만 믿고 안심하고 기다렸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 기도 전에 1순위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순천시의 이율 배반적인 행정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낼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최적후보지인 월등면 송치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열 람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거쳐 클린업환경 센터 입지결정고시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기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방문 입장객 SNS 이벤트

곡성군이 가을철을 맞아 섬진강기차마 을을 방문한 입장객을 대상으로 SNS이 벤트를 진행한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준비한 800개의 상품이 모두 소진되면 조 기에 마감한다.

이벤트 명칭은 '황금 기차를 찾아라!' 이며 두 가지 미션으로 진행된다. 미션1 은 기차마을 곳에 숨겨진 황금 기차를 찾 아서 인증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업로 드하면 된다.

미션2는 섬진강기차마을 공식 인스타 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유튜브까지 3개 중 2개 이상에 팔로우·좋아요·구독을 누 르면 되고, 두 가지 미션을 완료한 후 상 품 수령 장소로 가서 직원에게 확인을 받 으면 바로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상품은 시설이용 할인 쿠폰과 선택상품 이 지급되며, 선택상품은 선착순으로 취 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져갈 수 있다.

이벤트는 한 가구당 각각 한 번씩만 미 션을 수행할 수 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클릭!고향 속으로



고흥군 자원봉사센터, 볼런투어 운영

고흥군 자원봉사센터가 최근 7회에 걸쳐 27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체 볼런투어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볼런투어는 마리안느 · 마가렛 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원봉사 교육, 레 크리에이션과 힐링 강의, 취약계층 생 필품 꾸러미 전달 및 자원봉사활동 등 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봉사단체의 한 회원은 고 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돼 좋았고 취 약계층 어르신을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 해 드리며, 집안 정리정돈 봉사도할 수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2019년부터 소록도 마리안 느·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 볼런투어를 운영하



광양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업사이클링 공예품 기부

광양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 최근 '선샤인 물물 교환소' 사업을 통해 직 접 만든 업사이클링 공예품을 한부모 60가정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여성친화시민참여단 30여 명은 아이스팩과 아이스박스를 수거・세척 후 새싹삼 재배키트와 디퓨저를 만들었다. 안은영 대표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도 버려지는 물품들로 공예품을 만들고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리사이클 문화가 확산돼 쓰레기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은 아이스팩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파악해 수요 업체에 조건부로 제공하고 상인들의 물 품을 재기부받아 다시 나누는 물물 교 환소도 시행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구례 보건의료원, 유아 흡연 예방 인형극

구레군 보건의료원이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인 형극을 공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형극은 강사가 17개 유치원 과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

이번 인형극은 '팝업모자 매직' 을 시 작으로 주의집중력을 높인 다음 '토끼

와 거북이'인형극을 기본 스토리로 흡 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교구를 활용해 그림판에 붙여보기 등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례군보건의료원관계자는 "앞으로 도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형 흡연 예방 인형 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